

마세라티 “레이싱 DNA로 빛어낸 혁신… 韓 시장 재도약”

창립 1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 신차 투입에 체질 개선 속도 AS 강화·인증 중고차 서비스 도입 슈퍼카 ‘GT2 스트라달레’ 韓 공개 640마력에 최고속도 시속 324km “일반 도로용으로 전환된 레이싱카”

“110년 역사의 마세라티는 경주용 자동차 레이싱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12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출시를 앞둔 ‘GT2 스트라달레’를 공개했다.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마세라티의 기원은 경주차에서 시작되었고, 레이싱에서의 유구한 역사와 성공적인 여정은 오늘날에도 고유의 DNA에 깊게 박혀 있다”며 “GT2 스트라달레는 마세라티의 정통성과 현대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로 혁신작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마세라티만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1914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작은 공방에서 경주차를 만들던 마세라티는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았다.

이날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마세라티가 성장해온 지난 110년간의 여정을 소개했다. 30여 년 전 일본 지역 마세라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이 12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마세라티(Maserati)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티 오너 커뮤니티인 마세라티 클럽 오브 재팬을 설립한 신이치 에코 회장은 마세라티의 오랜 오너이자 고객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브랜드가 지닌 헤리티지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브랜드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장에는 브랜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핵심 모델이 전시됐다.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이 실제로 소유한 ‘기블리 2세대’, 마세라티 브랜드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단 180대 한정판으로 선보인 ‘스파이더 90주년’ 등 마세라티를 대표하는 클래식카와 현행 핵심 차종인 ‘뉴 그란카브리오’를 전시했다.

또 마세라티의 출발점인 레이싱 DN



국내 출시를 앞둔 ‘GT2 스트라달레(GT2 Stradale)’

/손진영기자 son@

A에서 비롯된 브랜드의 최신 모델 ‘GT2 스트라달레’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마세라티는 GT2 스트라달레를 설계하는 데 있어 ‘GT2’의 강력한 성능과 ‘MC20’이 성공적으로 로드카에 접목한 스포티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GT2의 레이싱 DNA를 계승한 만큼 주행 성능 또한 레이싱카를 닮았다. GT2 스트라달레는 마세라티가 직접 설계 및 제작한 V6 네튜노 엔진을 장착했다. 현행 모델 중 가장 강력한 네튜노 엔진을 갖춰 최고 출력 640ps 및 최대 토크 720Nm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8초 만에 도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4km에 달한다.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세라티는 국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우리는 고객 만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S센터와 같은 서비스와 부품 가용성 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딜러에게 인증 중고차서비스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잔존 가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럭셔리 수입차들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세라티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세라티는 국내 진

출과 함께 화려한 디자인과 폭발적인 주행성능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드림카’로 주목받으며 2015년 처음 연간 1000만대를 돌파, 2018년 연간 1660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판매량이 감소로 1000대를 밑돌았으며 올해는 11월까지 230대에 머물러 있다.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한국 마세라티 오너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마세라티와 함께 하는 매 순간 110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는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세라티 GT2 스트라달레 국내 출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클라우드

‘AI반도체 팜 구축’

2차년도 사업 순항

KT클라우드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AI 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반도체 팜 구축·실증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저비용·고효율 AI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다. KT클라우드의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라벨리온, 퓨리오사AI, 사피온 등 AI반도체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1차년도에는 1.1페타플롭스(PF, 1초당 1000조번 연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NPU(Neural Processing Unit)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며 AI반도체 활용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2차년도에는 총 19.95PF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3.35PF 연산용량의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됐으며, 자연어 처리, 교육, 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 실증과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교통관제 분야에서는 실증 기업인 라온로드와 협력해 AI 서비스의 성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LG “IoT·AI 신뢰도 높인다” 사이버보안 검증 역량 입증

IoT 사이버보안 공인시험 자격 획득 실시간 외부 위협·침입 탐지해 차단

LG전자가 고객 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사물인터넷(IoT) 분야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공인시험 수행 자격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한 IoT 기기 사이버보안 표준 인증 시험 성적서가 공신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LG전자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100여 개 국가의 공인시험 및 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IoT 보편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품(Connected Device)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출시 후 사 용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엄격히 보호한다.

특히 AI 기능을 담은 제품을 중심으



LG전자 CTO부문 박인성 SW센터장이 IoT 분야 사이버보안 공인시험 자격 인정서를 들고 있는 모습. /LG전자

로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인 ‘LG쉴드(LG Shield)’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실시간으로 외부 위협 및 침입을 탐지해 차단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SW공인시험소는 KOLAS로부터 SW(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을 국내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획득했다. 이후 가전 SW기능안전과 자동차 SW기능안전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바 있다.

박인성 LG전자 SW센터장은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력을 높이고 SW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과기부, 통신 트래픽·장애 대응 점검

유상임 장관, KT 관제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유상임 장관이 경기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통신 트래픽 급증과 통신장애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2011년 12월에 설립된 통합 네트워크 관제 시설로, 전국 KT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이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4일 대규모 인원 밀집 상황에 대비해 통신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통신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통신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하고 통신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장애 대응에 나섰다. 광화문·시청, 여의도, 용산 등지에 이동기지국과 간이기지국은 전주 대비 각각 15대, 34대 증가한 36대, 39대가 마련된다. 상황실 및 현장대응 인력도 88명에서 124명으로 늘렸다.

/이혜민 기자

네이버, 신규 블로그 1년 새 214만개

2024 블로그 리포트 발표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들의 활약을 한 눈에! 2024 네이버 블로그 리포트 공개 네이버는 1년동안 블로그 트렌드를 정리한 ‘2024 네이버 블로그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0년부터 매년 연말에 블로그 서비스 트렌드와 데이터를 담은 블로그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네이버 블로그에는 214만개(누적 3500만개)의 새로운 블로그가 생성됐고, 블로그 총사용 시간은 7억 시간을 기록했다. 또 하루 동안 작성된 게시글은 최대 120만개, 방문자는 최대 1800만명, 새로 맺어진 이웃 수는 64만명, 페이지뷰는 2억6천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포토덱스 챌린지’가 MZ세대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네이버 측은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